

중국 - 금년의 인플레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중요한 실마리 <1/2>

중국의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은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201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國民經濟 - 社會發展 統計 公報)”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의 중국경제는 안정적이며 빠르게 발전하여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가 가

국제통계국의 부국장은 “제11차 5개년 계획의 달성은, 계속되는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에 발전할 기초가 된다. 그러나 세계적인 유동성이 커지고, 국제상품시장의 상품가격과 주요통화의 혼란은 중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2011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실마리가 되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통계공보”에 의하면, 2010년의 “중국 국내총생산(中國 國內總生產 : GDP)은 2009년과 비교하여 10.3% 많은 39조 7983억 위안(元)이었으며, 성장률은 2010년과 비교하여 1.1포인트(point)가 올랐다. 성장률은 세계의 중요 국가지역을 웃돌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발표에 의한 2010년도의 GDP에 관한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일본을 앞서서, 세계에서 둘째가는 경제체제로 되었다. 2010년의 중국경제 성장은 복잡한 국내외의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냈다. 구주에서는 채무위기가 계속되어, 세계경제가 두 번째로 바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업률이 나빠지고, 소비가 잘 안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회복도 예상보다도 늦으며, 세계경제의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중국의 성장은 강조될 만하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이상기후를 만나서, 가뭄과 수해가 많이 생겨 농업·교통수송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름에 수확할 곡물과 이른 벼 생산(올벼)의 감소로 감소되는 상황인데 만일 가을 수확이 나빴으면 식량생산과 그 가격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계공보”에 의하면, 2010년은 식량의 수확고가 전년과 비교하여 2.9%가 늘어 5억 4641만 톤이 되어,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럼으로써 7년 연속하여 증산하였고, 4년 연속하여 수확고가 5억 톤 이상을 달성한 것이 된다. 이중에서 여름에 수확하는 곡물생산고는 0.3% 줄어 1억 2310만 톤, 이른 벼 생산은 6.1% 줄어 3132만 톤이었는데, 가을에 수확한 곡물은 4.8% 늘어 3억 9199만 톤이었다.♣